



## 차 문화 생활 :

# 이규보가 차를 마실 때 사용한 도구

윤호진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 ◆◆ 머리말

이규보(李奎報)는 차에 관한 여러 내용을 시로 읊었다. 앞서 이규보가 언급한 차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이규보가 차를 마실 때 사용한 도구로는 어떤 것이 있었던가를 대략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지금은 다구(茶具)가 발달하여 각양각색의 도구와 모양이 갖추어져 있는데, 과연 옛날에는 어떤 도구로 차를 마셨으며, 특히 이규보는 어떠한 다구를 사용하였던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차를 마시는 도구는 크게 차를 끓이기 위해 불을 지피는 화로, 차를 달이는 다관이나 다병, 그리고 찻잔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이 세 가지 도구들이 매우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엄청나게 많은 다구들이 쓰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규보가 사용한 다구는 화로와 다관, 그리고 고려차의 특징인 떡차를 갈기 위한 맷돌 등 서너 가지가 자료에 보이고 있다.

### ◆◆ 여러 가지茶具

#### 1) 鐵瓶 : 쇠병

요즘은 차를 마실 때, 주로 전기포트에 물을 끓인 뒤 다완에 부어 온도를

적당히 맞춘 뒤 차가 들어 있는 다관에 옮겨 부어 차를 우려내어 잔에 따라 마신다. 이렇게 하자면, 시중에서 흔히 파는 다기세트에 있는 다구들, 다관, 다완, 찻잔, 그리고 전기포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옛날에는 다병, 혹은 다관에 직접 끓여서 잔에 따라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 이숭인이 지은 『제신효사감다방(題神孝寺湛師房)』이라는 시에 이러한 정황이 잘 드러나 있다.

나의(蘿衣)와 백납(百納)을 걸친 모습 형체를 잊었고,  
 도를 깨우친 뒤 요즘에는 경서를 외는 것도 그쳤네.  
 선탑(禪榻)에 지는 꽃 날아들어 봄은 이미 쓸쓸한데,  
 솔바람 소리, 봄비 내리는 모습 다병에서 생기네.

蘿衣百納已忘形，悟道年來輟誦經。  
 禪榻落花春寂寂，松風和雨生茶餅。<sup>1)</sup>

이 시는 신효사(神孝寺)라는 절의 담사(湛師)가 거처하는 방의 정경을 읊은 것이다. 1, 2구에서는 오도(悟道)의 경지에까지 든 담사의 모습을 묘사했고, 3, 4구에서는 늦은 봄꽃지는 쓸쓸한 절에서 차를 끓이는 모습에 대해서 읊었다.

절에서 차를 끓여먹는 것이 불교적 의식이나 행위 이외에 절의 생활을 대표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차를 끓여 마시는 내용은 마지막 구절에 묘사되었는데, 구절의 내용을 직역하자면 다관(茶罐)에서 차를 끓이니 송풍(松風)과 화우(和雨)가 생겨난다고 했다.

이는 다병(茶餅)에 차를 끓일 때 물이 끓는 소리와 모습을 말한 것이다. 물이 솔솔 끓어오르는 소리를 소나무에 부는 바람소리로 묘사했고, 물이 뽀글뽀글 솟아오르는 모습을 화우로 묘사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다병은 단순히 찻물을 담은 병이 아니고, 불에 끓이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차를 끓이는 소리 병에서 지렁이가 우는 듯하다[煮茶餅叫蚰]”<sup>2)</sup>라고 읊은 이숭인의 『제야용고인운(除夜用古人韻)』이라는 율시에서도 볼 수 있다. 비록 차를 끓이는 소리에 대한 묘사는 앞의 시와 다르지만, 여기에서도 병을 불 위에 올려놓고 차를 끓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다병을 직접 불에 올려놓고 차를 끓이던 일은 조선 초기 변계량(卞季良)의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수기(睡起)』라는 시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한 바 있다.

1) 李崇仁, 『陶隱先生詩集』卷3「題神孝寺湛師房」  
 2) 李崇仁, 『陶隱先生詩集』卷2「除夜用古人韻」

초가집 처마에 날은 고요하고 작은 창은 밝은데,  
창밖에 비치는 푸른 산은 꽃무늬 병풍과 같네.  
숙취가 깨어오는 때 바야흐로 정오가 되어가니,  
손수 화로에 불붙이고 다병을 따듯하게 덥히네.

茆簷日靜小窓明, 窗外青山作畫屏。  
宿醉醒來時政午, 手開爐火煖茶瓶。<sup>3)</sup>

위의 시를 보면 다병을 직접 화로 불에 올려놓고 차를 끓였던 당시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 다병은 단순히 차를 담는 병이 아니라 차를 끓이는 다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관은 조선 시대 선비가 생활할 때 필요한 필수품 가운데 하나였음을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 양인수(梁仁叟)의 초당(草堂)인 주영림수재(晝永簾垂齋)를 묘사한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여기에서 “양군은 본성이 게을러 들어앉아 있기를 좋아하며, 권태가 오면 문득 주렴을 내리고, 검은 궤(几) 하나, 거문고 하나, 검(劍) 하나, 향로 하나, 술병 하나, 다관(茶罐) 하나, 옛 서화축(書畫軸) 하나, 바둑판 하나 사이에 퍼진 듯이 누워 버린다.”<sup>4)</sup>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통해 선비가 거처하는 공간에 갖추어져 있는 물건들이 대략 어떤 것인가 짐작할 수 있다. 거문고, 갈, 향로, 술병, 바둑판, 서화축 등이 그것인데, 이 가운데에 다관이 하나 포함 되어 있다. 다관이나 다병은 주로 돌이나 쇠로 만들어지는데, 박준원(朴準源)의 『청자다관명(靑瓷茶罐銘)』이라는 글에는 다관이 청자로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다관은 작설(雀舌), 오명(五名)에는 마땅치 않고, 오직 진주(眞珠), 계화(桂花)의 차만 끓일 수 있다. 이 다관은 한양의 여러 샘물은 마땅치 않고, 오직 금릉(金陵), 절강(浙江)의 물로만 끓일 수 있다. 이 다관은 흙으로 된 화로에는 마땅치 않고, 오직 산예(狻猊), 박산(博山)의 화로에 만 엿을 수 있다. 이 다관은 나무 뿔같은 마땅치 않고, 검은색 석탄만 뿔 수 있다. 빛나는 무늬는 푸른 꽃술로 이루어져 있고, 강한 바탕은 자옥(紫玉)과 같다. 이 지극한 보물로 잔치 자리 에나 어울리는 물건을 한미한 선비의 방에서 어떻게 감당하라?<sup>5)</sup>

3) 下季良, 『春亭先生詩集』 卷1 「睡起」

4) 朴趾源, 『燕巖集』 卷10 別集 晝畫溪菟逸 「晝永簾垂齋記」

5) 朴準源, 『錦石集』 卷8 「靑瓷茶罐銘」 “是罐也不宜雀舌五名, 惟眞珠桂花之茶可烹, 是罐也不宜漢陽衆泉, 惟金陵浙江之水可煎, 是罐也不宜土火林, 惟狻猊博山之爐可張, 是罐也不宜木柑柶, 惟獸形烏彩之炭可爇, 翠琰兮其文之章, 而紫玉兮其質之剛, 斯至寶兮燕物, 胡爲乎寒土之室.”

청자 다관을 놓고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읊었다. 청자 다관을 너무 소중하고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는 차도 함부로 아무 것이나 끓일 수가 없고, 물도 아무 물이나 쓸 수 없으며, 심지어 불도 아무 땀나무나 땀 수 없다고 하며, 자신과 같이 한미한 선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귀한 청자 다관이라면 아마도 고려시대의 청자 다관이 아닌가 싶다. 고려시대 왕가나 귀족, 더러는 사대부 집에서 청자 다관에 차를 끓여 먹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그런데 정작 고려시대 인물인 이규보는 철병에 차를 끓여 먹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득남인소향철병시차(得南人所餉鐵瓶試茶)』이라는 시에 이러한 내용이 보인다.

맹렬한 불에 거센 쇠를 녹여내어서,  
 속을 파내어 이 단단한 것을 만들었네.  
 부리는 길어 학이 돌아보는 듯하고,  
 배는 볼록하여 개구리가 우는 것 같네.  
 자루는 뱀의 꼬리 구부러진 듯하고,  
 목은 오리의 목에 흑이 난 것과 같네.  
 우묵하기는 입 작은 향아리와 같고,  
 다리가 긴 솔보다 훨씬 안전하다네.

猛火服悍鐵，剝作此頑硬。  
 喙長鶴仰顧，腹脹蛙怒迸。  
 柄似蛇尾曲，項如鸞頸癭。  
 窪却小口甌，安於長脚鼎。<sup>6)</sup>

이 시에는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이규보가 남쪽 사람이 보낸 철병을 얻어서 차를 끓여 보면서 지은 것이다. 남쪽 사람이 누구지는 모르지만, 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병은 바로 차를 끓이는 용도로 쓰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6) 李奎報, 『東國李相國集』卷3 「得南人所餉鐵瓶試茶」

이규보는 철병을 얻어 차를 끓이며, 철병의 제조, 철병의 모습에 대해 매우 자세히 묘사하였다. 차를 끓이던 이 철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고, 오늘날의 주전자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이 고개를 들어 돌아보는 듯한 긴부리, 개구리가 울면서 배를 벌떡이듯 불룩한 배, 뱀꼬리를 구부러 붙인 듯한 자루, 오리의 목에 흑이 난 듯한 목 등은 모두 오늘날의 주전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다리가 긴 술보다 안전하다고 한 것은 아마도 이전에는 차를 끓일 때 다리가 긴 술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다리가 긴 술은 다리 아리에 불을 지피 차를 끓였겠지만, 이 철병은 화로 위에 올려놓고 끓이니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규보가 사용하던 철병의 모습이 무척 상세히 드러난 소중한 자료이다.

## 2) 石鼎 : 돌솥

이규보가 철병에 차를 끓여 마셨음을 이상에서 살펴보았는데, 다른 몇몇 자료에는 그가 또한 돌솥에다가 차를 끓여 마셨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규보의 『방엄선로 용벽상서족시운 이수(訪嚴禪老 用壁上書簇詩韻 二首)』라는 시의 두 번째 작품을 보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돌솥에 차를 달여 술 대신 마시며  
 화로를 끼고 둘러 앉아 찬 옷을 말리누나  
 향불은 몽실몽실 파란 연기 날아오르고  
 꿀을 쪼개니 하얀 즙이 이슬처럼 흐르네

石鼎烹茶代酒卮，擁爐圍坐熨寒衣。  
 香畦縈穗青烟直，橘腦分漿玉露飛。<sup>7)</sup>

이 시는 엄선로를 만나 차를 마시고 즐기던 일을 읊었다. 차를 끓여 술 대신 마셨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당뇨를 앓아 술보다는 차를 마셨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석정에 차를 달인다고 하고 화로를 끼고 둘러앉았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화로 위에 돌솥을

7)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卷8「訪嚴禪老 用壁上書簇詩韻」

올려놓고 차를 끓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내에서 화로 위에 석정을 올려놓고 차를 끓여 마셨던 당시의 풍속을 역력히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석정에 차를 끓여마시던 일은 고려시대에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은 이색(李穡)의 『설후부용중강운(雪後復用仲剛韻)』이라는 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는 “그윽한 거처 더욱 맛이 있으니, 돌솥에 차 끓이는 일도 좋아라.[幽居尤有味, 石鼎好煎茶.]”<sup>8)</sup> 라고 하였다. 이색은 추운 겨울 방에서 술도 마셨지만, 차 마시는 일을 더욱 흥미가 있는 일이라 했다. 동시에 그는 돌솥에 차를 끓이는 일이 특히 좋다고 하였다.

조선 초기의 관인이며 문인인 서거정(徐居正)은 비교적 차를 석정에 끓이는 것에 대해 많이 읊었는데, 그는 『임정만음차잠상인운(林亭晩啜 次峯上人韻)』이라는 시에서 “한참 동안 고승과 함께 정담을 나누노라니, 차 끓이는 돌솥에 솔바람 소리를 보내오네. [移時軟共高僧話, 石鼎松聲送煮茶.]”<sup>9)</sup> 라고 하였다.

이 시에서처럼 옛날 사람들의 시에는 차 끓이는 돌솥에서 솔바람 소리가 난다고 노래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소식(蘇軾)이 일찍이 『시원전다(試院煎茶)』라는 시에서 “이미 게의 눈보다 커서 물고기 눈만 해지니, 펄펄 끓는 소리 솔바람 소리를 내는구나.[蟹眼已過魚眼生, 颯颯欲作松風鳴.]”<sup>10)</sup> 라고 하여, 차를 끓일 때 물이 끓어오르며 방울이 생기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소리를 이처럼 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상에서처럼 석정에 차를 끓여 먹었던 일과 그 이유에 대해서 조선 중기의 문인 최립(崔嵬)은 석정에 대해 읊은 한 편의 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머리 모양은 쭈글쭈글 배는 한껏 불룩하고,  
산의 뼈를 누가 깎아 이 돌솥을 만들었나.  
차도 끓여 먹고 겸하여 약도 달여 먹으니,  
쇠의 거침과 구리의 비란내를 싫어해서라네.  
이끼 무늬 마른 곳은 잘못 쓴 전서(篆書)와 같고,  
끓을 때 샘물 소리는 요란한 생황소리 같네.  
오늘날 연구(聯句) 지을 어진 사람들 있으니,  
나랏일 돕는 것 끝내 도를 시행해야 만하리.

8) 李穡, 『牧隱詩藁』 卷2 「雪後復用仲剛韻」

9) 徐居正, 『四佳詩集』 卷21 「林亭晩啜 次峯上人韻」

10) 蘇軾, 『東坡全集』 卷3 「試院煎茶」

頭容齒蠹腹膨脝, 山骨誰將斲得成。  
 也爲烹茶兼煮藥, 應嫌鐵澁與銅腥。  
 蘇文乾處似訛篆, 泉響沸時如亂笙。  
 此日聯詩賢輩在, 調羹終要道施行。<sup>11)</sup>

이 시에는 “기미년 봄에 직부전시(直赴殿試)의 명이 내려졌는데, 그때 신은(新恩)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서(注書) 이청련(李靑蓮) 공이 시운(詩韻)을 출제한 다음에, 급히 지어 올리도록 하였다.”라는 서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립이 젊었을 적에 이청련이 낸 시운에 따라 급히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젊었을 적에 남의 칭에 못이겨 지은 시이지만, 차를 마시는 도구의 하나인 철병에 대해 자세히 읊었다. 이 시에는 다른 어느 자료에서보다도 철병의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조선 중기 철병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기능하였던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4구에서는 “쇠의 거침과 구리의 비란내를 싫어해서라네.”라고 하여, 석정이 철병이나 동병에 비해 얼마나 좋은가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차 끓는 소리를 소나무에 부는 바람 소리를 넘어 생황이라는 악기소리에 비유하였다.

이상과 같이 석정은 조선 중기에서도 철병이나 동병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여전히 사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도 다른 사람이 철병을 주어서 시험삼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보통은 석정을 더 많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편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없고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 3) 博爐 : 벽돌 화로

옛날 물이나 국을 뜨겁게 끓일 때, 부엌에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화로에 하였다. 화로는 실내용과 실외용이 있겠는데, 실내용은 일반적으로 질화로나 무쇠 혹은 청동화로가 쓰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외용은 벽돌화로가 많이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규보의 경우 차를 끓이기 위한 화로로서 벽돌화로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주로 밖에서 벽돌화로에 불을 때어 돌솥에 차를 끓여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권13에 실려 있는 『雲峯住老珪禪師 得早芽茶示之 予目爲孺茶 師請詩爲賦之』라는 시는 우리나라 차를 이야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1) 崔崑, 『簡易集』 卷6 拾遺「銀臺二十詠」

여기에서는 차에 관한 많은 내용, 특히 고려시대의 차와 생산, 차 마시는 풍습, 이규보의 차에 대한 관념과 태도, 차를 마시던 모습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시에서는 모든 것을 봄과 여름에 나고 자라서 가을에 익는 것이 정상인데, 차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차를 이른 봄에 채취하여 맛보는 것을 노래하였다.

인간세상에서 온갖 맛 중에 일찍 맛봄이 귀하니  
하늘이 사람 위해 절기(節氣)를 바꾼 것이라?  
봄에 꽃피고 가을에 익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니,  
이것에서 어긋나면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네.  
근래 세속의 풍습은 기이한 것을 좋아하니  
하늘도 사람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따르네.  
짐짓 건계의 차가 이른 봄에 싹트게 하니,  
황금 같은 노란 싹이 봄눈 속에 자랐네.  
남쪽 사람들 맹수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험난함을 무릅쓰고 침당굴 휘어잡았네.  
천신만고 끝에 따다가 등글게 만들어,  
달려가서 첫 번째로 천자에게 드리려 하네.  
선사는 어디에서 이런 물건을 얻었던가?  
손에 넣자 놀랍게 향기가 코를 찌르도다.  
벽돌 화로에 불을 붙여 한 번 끓여내어,  
꽃무늬 자기 잔에 따르니 색과 맛이 뛰어난네.

人間百味貴早嘗，天肯爲人反候氣。  
春榮秋熟固其常，苟戾於此卽爲異。  
邇來俗習例好奇，天亦隨人情所嗜。  
故教溪茗先春萌，抽出金芽殘雪裏。  
南人曾不怕髭鬚，冒險衝深捫葛藟。  
辛勤採摘焙成團，要趁頭番獻天子。  
師從何處得此品，入手先驚香撲鼻。  
塶爐活火試自煎，手點花瓷誇色味。<sup>12)</sup>

12)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3 「雲峯住老桂禪師 得早芽茶示之 予目爲搗茶 師請詩爲賦之」



여기에서는 황금같은 노란 흙이 눈 속에서 자란다고 하며, 찻잎이 일찍 돌아남을 노래했고, 남방 사람들은 맹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칫덩굴을 휘어잡으며 차를 채취한다고 하였으니, 차는 주로 남방에서 그리고 야산에서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서는 남방 어느 곳인지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나, 제목에서 운봉의 노규선사에게 보낸 것으로 보아 전라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채취한 뒤에 불에 말려 등글게 만든다고 했으니, 이른바 ‘전차’라 불리는 떡차를 만드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임금께 드린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진상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시에는 끝에서 “벽돌 화로에 불을 붙여 한 번 끓여내어, 꽃무늬 자기 잔에 따르니 색과 맛이 뛰어나네.”라고 하며 풍로 혹은 화로에 달여 먹었음을 말하였다. 번역에서는 ‘풍로’라 하였으니, 당연히 밖에서 불을 때는 화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구절은 차를 끓여낸 뒤에 마시는 일을 읊었는데, ‘手點花瓷’라는 말은 꽃무늬가 새겨진 아름다운 청자에 손으로 차를 따른다는 것이다. 아마도 청자 찻잔에 따라 마시던 것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誇色味’는 파란 청자에 담긴 차의 색과 맛이 매우 뛰어나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다음 이규보의 『得南人所餉鐵瓶試茶』라는 시도 차를 끓여 마시는 일을 읊은 것이다.

짐짓 사내 종을 불러서,  
찬 우물물을 길어 오라 했네.  
벽돌 화로에 손수 끓이니,  
한밤 누각에 등불이 반짝이네.

試呼平頭僕, 敲汲寒水井.  
塲爐手自煎, 夜閣燈火炯.<sup>13)</sup>

이 시는 물을 길어와 차를 끓이는 정경을 읊었는데, 여기에는 차를 마시는 도구 가운데 중요한 도구인 벽돌화로를 이야기하였다. 사내종이 우물물을 길어오고, 차를 달이는 일은 손수 하겠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차를 달이는 일은 종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규보는 앞서 살펴본 『暫遊感佛寺 贈堂頭老比丘』이라는 시의 두 번째 작품에서도 “돌솥에 차를

13)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3 「得南人所餉鐵瓶試茶」

끓이니 향기로운 것처럼 희고, 벽돌 화로에 불을 붙이니 저녁놀같이 붉다[石鼎煎茶香乳白, 塶爐撥火晚霞紅].<sup>14)</sup>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시에는 차를 어디에 끓였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데, 바로 화로에 차를 끓인다고 하였다. 지금이야 각종 도구로 불을 일으켜 차를 끓일 수 있지만, 예전에는 화로 혹은 풍로가 발달하지 않아 이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규보의 이 시에서는 차를 바로 벽돌화로에 끓여 먹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4) 茶磨 : 차를 가는 맷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시는 차는 대부분 잎차이다. 잎차는 “차나무 잎을 그대로 볶거나 찌거나 발효시키기도 하여 찻잎의 모양을 변형시키지 않고 원래대로 보전된 차.”<sup>15)</sup>이다. 잎차는 우리가 지금 마시는 것처럼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마신다. 하지만, 옛날에는 잎차 대신에 떡차를 즐겨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글에는 떡차의 제조, 떡차의 모양, 그리고 고려시대 떡차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익힌 찻잎을 찼어서 떡처럼 만든 차이다. 떡차의 모양은 동전 모양의 돈차(錢茶), 둥근 달 모양의 단차, 인절미 모양의 떡차, 크기도 큰 것 작은 것 다양하다. 고려 때에는 뇌원차, 유차(儒茶), 청대전(靑苔錢) 등의 떡차가 있었다.<sup>16)</sup>

이들은 모두 고려 시대의 차인데, 특히 유차(儒茶)는 이규보가 조아다(早芽茶)에 새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 글에서도 결국 떡차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차로 인식하였음이 드러나 있다. 다음 글에는 떡차의 제조방법이 더욱 상세히 드러나 있다.

맑게 갠 날 차 잎을 따서 찼 솔에서 찼다. 이것을 절구에 넣어 찼어서 떡 모양의 틀(둥근 모양, 모난 것, 꽃모양)에 찍어 내어서 대나무 발에 늘어놓고 햇빛에 건조시킨다. 건조되면 가운데에 창으로 구멍을 뚫고 건조로에 넣어 건조하여 이것을 꼬챙이에 끼워서 대나무 상자에 넣어 저장한다.<sup>17)</sup>

“떡차는 찻잎”을 채취한 뒤에 이를 찼 다음 찼어서 틀에 찍어 둥글게 모양을 만든 뒤 건조시

14)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17 「暫遊感佛寺 贈堂頭老比丘」

15) 네이버 지식백과 잎차 lipcha, leaf teal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4.10, 광일문화사)

16) 네이버 지식백과 떡차 [餅茶] (차생활문화대전, 2012.7.10, 홍익재)

17) 네이버 지식백과 당시대의 떡차 (차생활문화대전, 2012.7.10, 홍익재)

킨다. 따라서 매우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것은 마실 때에는 잘게 부순 뒤 맷돌에 갈아서 술에 넣고 푹 삶아서 먹는 것이다. 차마는 바로 이 때 차를 가는 전용맷돌인 썸이다.

조선 중기 오윤겸(吳允謙)이 일본에 사행으로 갔을 때 쓴 『동사상일록(東槎上日錄)』에 관백(關白)과 상견례를 행하기 전에 예물을 보내온 것에 대해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건복(乾鰯)·주과(酒果)와 함께 차와 관련된 것을 보내 온 내용을 볼 수 있다.<sup>18)</sup>

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다엽(茶葉)·성다병(盛茶瓶: 차를 담는 병) 및 다마자(茶磨子: 차를 가는 기구) 등을 보내왔다. 이 가운데 ‘다마자’는 차를 가는 맷돌이다. 이규보의 시 가운데 『사인증다마(謝人贈茶磨)』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규보가 떡차를 맷돌에 갈아 마셨음을 알 수 있다.

돌 쪼아 하나의 바퀴를 만들어,  
돌리는 일에 한 팔만 힘드네.  
그대가 어찌 차를 마시지 않고,  
내 사는 초당에 보내주었던가?  
내가 유독 잠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잠을 깨라고 보내준 것이리라.  
푸르고 향기나게 곱게 갈아내며,  
우리 그대의 뜻에 더욱 감동하네.

琢石作孤輪, 迴旋煩一臂。  
子豈不啜飲, 投向草堂裏。  
知我偏嗜眠, 所以見寄耳。  
研出綠香塵, 益感吾子意。<sup>19)</sup>

이 시는 이규보가 차를 다마에 갈아 마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규보 당시의 다마의 모습과 다마로 차를 가는 형상 등이 잘 드러나 있다. 고려시대 차를 마시던 풍속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의 하나라고 하겠다. 1, 2구절을 통해서도 차마가 바로 옛날의 맷돌과 동일하게 생겼고, 사용하던 방법도 똑같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8) 吳允謙, 『東槎上日錄』 “八月二十三日. 晴. 留館, 夕義成調興, 自關白所回來, 爲言關白甚喜, 定於二十六日, 行相見之禮, 幸甚幸甚, 上野使副官, 送乾鰯酒果茶葉盛茶瓶及茶磨子, 上野乃關白執政大臣, 下館, 卽爲來見, 又送禮物, 前所未有云.”

19)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卷14 「謝人贈茶磨」

## ◆◆ 맺음말

이규보가 사용한 다구는 철병(鐵瓶), 석정(石鼎), 전로(傳爐), 다마(茶磨) 등 네 가지 정도이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이 네 가지를 선물로 받거나, 혹은 사용하면서 읊은 것인데, 그 모양에 대해서 읊은 것도 있다.

철병에 대한 시는 철병의 구체적 모양을 묘사하여, 그것이 오늘날의 주전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철병보다는 석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리가 달린 솔보다는 석정이 매우 안정감이 있다고 석정을 예찬한 것도 볼 수 있었다.

벽돌화로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많은 시를 남겼는데, 전로는 차를 마실 때 밖에 설치된 벽돌화로에 차를 끓여 마셨음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석정을 실내의 화로 위에 놓고 차를 끓여 마신 것도 보이지만, 벽돌화로에 끓여 마신 것이 보다 더 보편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려 시대 차의 특성상 떡차를 마실 때 이를 잘게 부수기 위한 맷돌, 즉 마자에 대해 이규보가 읊은 시가 있다. 이 시를 통해 당시의 마자의 모습과 기능, 그리고 맷돌을 통해 갈아낸 차를 마시던 모습 등이 드러나 있어 당시 차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